

담양군,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 구현 위한 시책 발굴 보고회

실과소별 핵심 정책방향 설정 역량 집중...현안 성공 추진 관습적으로 이뤄진 시책·부진사업 타당성·경제성 보고도

담양군이 20일 군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 실현을 위한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처음 시책을 계획한 만큼 군수공약사항 실현 및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연계

시책 발굴 중심으로 심도 있는 보고가 이뤄졌다. 군은 군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통합의 포용적인 공감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과소별 핵심 정책방향 설정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책이나 부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보고를 함께 진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전 부서가 이번 보고회에 발굴된 시책들을 통해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세부실천 계획들을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핵심 시책들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도곡면 "불거리 많은 고인돌문화축제 놀러오세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

화순고인돌문화축제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화순군은 23일 도곡면 효산리 소재 세계석대마파르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 고인돌 축제와 민민의 날 행사, 25일 경로 위안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고인돌 축제는 '영원한 생명, 고인돌 속으로'라는 주제로 8개 부문 42개 단위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시, 체험, 판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관광객과 어린이, 청소년, 지역 주민 모두가 어우러진 축제를 준비했다는 게 도곡면의 설명이다.

고인돌 선사생활 체험마당인 솟대세우기, 관광객과 지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고인돌 끌기, 대형 트랙터 달구지를 타고 고인돌 옛길을 왕복하는 新 달구지 탐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장기자랑,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마을별 체육경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지역민의 화합도 도모할 예정이다.

문형운 화순고인돌축제 추진위원장은 "내년 부터는 고인돌문화축제가 군에서 주관하는 사계절 꽃축제로 거듭나게 된다"며 "지역 축제로 열리는 마지막 해이기에 열심히 준비해 도곡면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선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는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산리 일대 3km에 걸쳐 596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인돌 유적지 가운데 유일하게 채석장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오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3년의 기다림'...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다시 열린다

10월 8일 개막...4개 테마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간 중단됐던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오는 10월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내달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황룡강 일원에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개최된다.

황룡강은 매년 가을 개화시기마다 피어나는

수십억 송이의 가을꽃으로 유명하다. 강변 3.2km 구간에 장관을 이룬 화려한 꽃들이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꽃축제는 3년 연속 100만명 방문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남도에서도 축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2회에 걸쳐 '전남 대표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구례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시행

구례군은 2억9천7백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승용차 20대를 민간에 추가로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자격조건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구례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며, 법인이나 기관은 구례군에 소재하면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3차로 보급하는 전기승용차는 우선순위(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등) 물량 2대를 포함하여 총 20대 보급하며, 구매보조금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526만 원에서 최대

1,4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군은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하고 판매점으로부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9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홈페이지(www.gurye.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교통과((☎061-780-2328)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동헌터 발굴 부지에 수천송이 백일홍 만개

관광객 맞이 정수루·망화루 개방

문화재 복원사업이 지연되면서 임시 주차 부지로 사용돼왔던 나주목사내아 앞 나주목 동헌터 부지 일대가 수천송이의 백일홍 꽃향기로 물든다.

나주시는 '문화재 인근 환경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동헌터 부지 약 3600㎡에 백일홍 화단을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단 조성은 임시주차장, 공터 개념

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안심할 수 없어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무대 행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소규모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로 축제의 가락을 잡았다.

첫날인 8일 오후 6시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도 명인·명창들의 국악 공연이 열려 황룡강 가을꽃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전통열차와 문보트 수상 체험, 야간경관 조성, 동호회 작품 전시 등 즐길거리와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장성=김수권 기자

곡성 설산산성, 전라남도 道 문화재 지정

곡성군 옥과면 설산산성이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다.

곡성 설산산성은 성벽 추정 길이 1천 300m로 문지 3개소(동·서·남), 건물지 4개소, 대형 집수시설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토기와 기와 등에서 신라 말 고려 초 시기의 양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0세기 전후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산산성의 특징은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계

곡 일대를 돌아가며 성을 쌓는 방식인 포곡식(包谷式)과 성벽 일부를 산의 종턱까지 내려서 성을 쌓는 방식인 산복식(山腹式)이 사용됐다는 점이다. 자연 지형을 이용한 통일신라시대 축성법이다.

전라남도는 설산산성이 성곽사와 당시 관광 체계를 연구하는 데 학술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도 문화재로 지정하게 됐다.

곡성=양해영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	